

# 눈물 속 배웅... "두 영웅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합동영결식

### 유가족·동료·추모객 1000여명 참석...추도사 등 뉘 거려 1계급 특진·육조근정훈장 추서...유해, 대전현충원 안장

"두 영웅의 고귀한 헌신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의 합동영결식이 14일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눈물 속에 엄수됐다. 유가족과 동료, 추모객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두 영웅'을 애도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날 전남도청장(葬)으로 처리된 합동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묵념을 시작으로 약력 보고, 1계급 특진 및 훈장 추서,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와 추도사,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고인들에게는 각각

1계급 특진과 육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영결사에 나선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소방 영웅을 눈물로 떠나는 자리에 서 있다"며 "수많은 재난 현장을 지킨 세 남매 아버지인 박승원 소방경과 젊은 나이에 소방을 택한 폐기 있는 노태영 소방교의 비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또 "완도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지킨 두 분의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두 분이 도민의 간절한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것처럼 전남도 역시 소방관을 지키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단상에 차려진 영정사진을 차마 쳐다보지 못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 고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 합동 영결식이 14일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소리조차 오일었다. 동료들의 추도사에는 고인의 헌신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완도소방서 소속 임동현 소방장은 "언제나 누구보다 먼저 장비를 챙기고 맨 앞에 나서는 소방관이었다"며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며 땀 흘리며 일한 동료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해남소방서 소속 임준혁 소방사는 "영정사진 속 형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

2022년 연고가 아닌 해남에서 근무하면서 도 쉬는 날 없이 자격증 준비, 훈련, 체력 단련을 하는 모습은 제 몰모텔이었다"며 "평생 형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고된 없이 행복하게 편히 지내길 기원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격해진 감정을 억누른 유가족들은 고인에게 올리는 글을 읽으며 명복을 빌었다.

박 소방경의 유가족은 "출근하기 전날 밤 마지막 모습이 생각이나. 이렇게 길지

물랐어. 난 준비가 안 됐어"며 "앞길에 막막하고 가슴이 아려. 엄마와 동생을 잘 지켜"고 말했다.

노 소방교의 유가족도 "형을 이 자리에서 볼 줄 몰랐다. 지난 10년 동안 술 한잔을 안 마셔본 게 제일 후회"라며 "나중에 만나면 꼭 술 한잔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된 유가족들의 애절한 사연은 영결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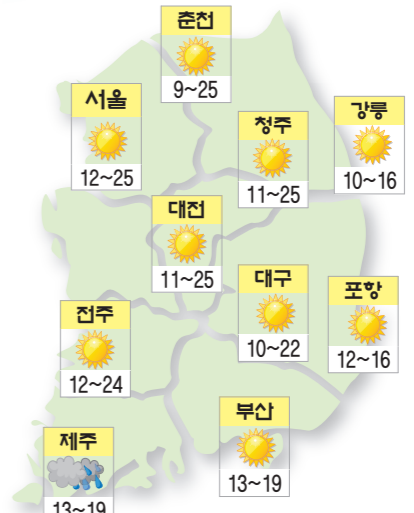
이후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자 유가족과 동료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정복을 입은 소방관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경례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영결식이 끝난 이후 소방 동료들은 제 단 앞에 다가가 "미안합니다", "어떡해" 등을 소리쳤고, 추모객들도 헌화하며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 두 순직 소방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6:01 달맞이 04:30  
☁️ 맑음 19:05 달맞이 16:42



광주	☀️	12~27
목포	☀️	13~22
여수	☀️	12~23
순천	☀️	12~25
구례	☀️	11~27
광주	☀️	12~24
전남	☀️	13~24
전남	☀️	10~17
전남	☀️	12~23
전남	☀️	12~20

목포	밀물(고)	00:15 / 12:41
	썰물(저)	05:48 / 18:14
여수	밀물(고)	07:48 / 20:02
	썰물(저)	01:21 / 13:50

## 누범기간 응주운전 '실형'

만년필 ○○집행유예 기간 응주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처가형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응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께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횡단알코올 농도 0.17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경찰의 응주운전 일제 단속에 적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응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응주 측정 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응주운전을 했다"면서 "과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이른 점에서 법원의 선처 기대를 저버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야산 깎고 폐기물 매립... 50대 건설업자 '형사처벌'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도심 야산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2만kg이 넘는 임목 폐기물을 매립한 50대 건설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선서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이 판결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건설기계 20여대를 동원해 광주 서구에 위치한 약 1만 4204㎡ 부지의 입야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보전산지 1만3708㎡를 무허가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벌채한 토지에 굴착기로 임목 폐기물 2만 2310kg를 매립한 혐의로 도 재판에 넘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

## "또 인재... 이번 화재도 총체적 부실"

### 비속련 인력 투입·기본수칙 무시 정황 드러나 전문가 "소규모 사업장 안전·제도 점검 시급"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가 예견된 인재(人災)였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4일 완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화재 당시 냉동창고 내부에서는 바다 예폭시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는 토치 램프를 이용해 코팅을 가

열해 녹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환경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방식이다.

특히 바다 페인트 작업을 위해 사용한 예폭시에는 신나 등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유증기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이 환기가 어려운 밀

폐 구조의 냉동창고 내부에서 이뤄졌다. 폐 구조의 내부에서 이뤄졌다.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한 유증기가 내부에 축적되며 사실상 '폭발 위험 공간'이 형성됐고,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던 셈이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쌓인 가연성 기체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화염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냉동창고 내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많아 화재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총

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 당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2인 1조 작업' 원칙과 화재 감시자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 총괄자이자 보수 공사업체 대표 역시 현장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노동자는 비속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30대·중국)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에 만연한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하는 관행'에서 비롯됐

다고 지적한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진입 당시 외부에서 확인되는 화재 징후가 크지 않았던 점, 내부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원 광주대 교수는 "비속련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감독 강화, 고위험 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밀폐 공간에서의 화기 작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부모 명의로 보조금 신청... 부정수급 탈미

### 광주노동청, 학원·수강생 공모 17명 적발...4600만원 환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노동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직업훈련 학원 직원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직업훈련학원에서 수강생 모집·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이 중심이 돼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수강생 대신 부모 명의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도록 유도, 3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온라인 취업지원 신청을 대리 진행했고, 실제 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매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간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총 17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478만원에 달한다.

노동당국은 이들에게 추가징수액 1210만원을 포함해 총 4688만여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전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 1월 지역 내 자격 취득 과정 등을 운영하는 일반 직업훈련학원에서 수강 학생 대신 그 부모가 취업지원을 신청, 무료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제보에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동일 IP 추적과 자격시험 응시 여부 확인,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출석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심폐소생술 교육 14일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열린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당국-유가족 합의' 제주항공 참사 재수색 재개

### 항철위, 현장 컨트롤타워...유해 추정 73점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승객 희생자들의 유해 재수색 작업이 유가족과 수색당국 간 합의 끝에 재개됐다.

14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민·관·군·경 합동 정밀 재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당국은 전날 오전 희생자 유해 재수색에 나섰다. 중장비 투입으로 인한 현장 훼손과 수색 범위 설정 오류 등으로 유가족들과 마찰·갈등을 빚으면서 오후부터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유가족들은 관계기관과 밤새도록 협의를 이어가 수색을 재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요구한 현장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맡기로 했다.

당초 수색 구역(2만6776㎡)을 콘크리트 둔덕과 공항 담장, 활주로 등 6개 구역으로 나눠 기관별로 분담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의 뜻을 수용해 구역 구분을 초기화하고 수색 체계를 정비했다.

콘크리트 둔덕은 경찰이, 활주로 일대는 군이 각각 집중 수색한다.

수색은 유해가 토양 깊숙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30cm보다 깊어 최대 1m까지 파낸 뒤 체로 흙을 거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수색 과정은 유가족 임의하에 이뤄지며 현장 운영과 수색 방식 전반에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 그리드(구역)가 끝날 때마다 유가족 확인을 거치게 된다.

공항 내 이동버스 대절 등 수색의 기초적인 지원 체계를 위한 예산은 현재 기획예산처 심의 중으로, 이달 말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정밀

수색에는 당초 하루 약 250명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최근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면서 일부 인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색 인력 가운데 20여명이 전날부터 현장 투입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의 복귀 시점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조사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73점이 발견됐으며,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15cm 길이의 유해 추정물도 있었다. 앞서 재수색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에는 유해 추정물 12점과 유류품 2점 등이 수습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